

“속이 타들어간다” 여당서 고개드는 조국 손절론...왜?

당청 지지율 동반하락에 총선 민심 불안감 엄습

조국 부인 구속 분수령 “검찰이 사실상 목줄 쥐어

‘조국 블랙홀’에 갇혀버린 여당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다. 조국 장관 지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에 격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꺼내든 여당이지만, 압박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 ‘임단속’을 세계 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조국 손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가 ‘조국 손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공강

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이같은 당내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도부가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합구령을 내렸지만 온도차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민주당의 검찰 고발 검토에 대해선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집권여당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지금이

라도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당 차원의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감이 당내 곳곳에서 표출되고 이유는 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심상치 않은 데다,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표심을 가를 20-30대의 이탈 움직임은 빼어난 대목이다.

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역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다”며 “지역 여론이 조국에 대해 8대2나 7대3 정도로 반대 찬성보다 많다”고 우려했다.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금태섭 의원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점점 우리가 늘어나고

있고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연일 토로하면서도, 정작 이 사태에서 영리하게 빠져나올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여당은 현실론도 없다.

총정권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만약 검찰 수사 중인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 정경심 교수 구속 등 바가지 않던 상황이 실제 전개된다면, 당이 완전히 조국에게 속은 것이 된다”며 “당에선 그럴리 없다고 판단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해도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권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역구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가까운 목소리들이 상당한데 딱히 뾰족한 수가 안보인다”며 “지금 출구전략을 찾기에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여론이 악화됐지만 총선이 아직은 몇달 남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다수”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키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여당도 ‘검찰의 입’을 주시하는 것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당내에선 목줄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울 지역 한 재선 의원은 “검찰 수사를 봐야하는데 지역여론은 조국 반대가 압도적”이라며 “조국의 거취는 결국 검찰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우리도 뒤라 말하기가 난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한 4선의원은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시점에서 조

국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 그 과업이 끝나면 검찰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장관이라는 명분을 갖춰 총선 전에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키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여당도 ‘검찰의 입’을 주시하는 것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당내에선 목줄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울 지역 한 재선 의원은 “검찰 수사를 봐야하는데 지역여론은 조국 반대가 압도적”이라며 “조국의 거취는 결국 검찰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우리도 뒤라 말하기가 난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성엽 대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를 것인가’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정치 공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 또 충돌

“순학규, 걱정해야” vs “윤리위 결정 하자 없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 자리가 비어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와 관련해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은 “하태경 징계 바로 잡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바른미래당 퇴진파와 당권파 사이 갈등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로 재점화한 가운데 양측이 25일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퇴진파 의원 15명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순학규 대표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퇴진파인 이해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징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원천무효다”라며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 모른다. 순 대표께서 걱정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어느 구성원도 윤리위 활동에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진파의 중대 결단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상징한 듯 “중대결단 시기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계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분석 결과를 제안 드린다. 비대위 구성은 정당범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맞가지 않는다...탈당 러시는 사실 아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는다. 같길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t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 인터뷰에서 최근 ‘정의당 탈당러시’ 보도를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권 논란에 휩싸

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정의당을 향해 당 안팎의 비판이 집중되면서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여러 가지 내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의당의 뜻을 왜곡하고

이제 정의당 탈기까지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조국을 차느냐, 마느냐에 앞서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세대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소득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